



# 동남아 경제정보

해외경제연구소  
개도국신용평가실  
2001. 12. 14.

## ◆ 제목: 인도네시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잇달아

### I. 최근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현황

#### □ IMF 차관지원 지속

- 2001년 12월 13일, 3억 6,000만 달러<sup>1)</sup>의 차관 지원의향서 체결  
→ 2002년 1월 중 집행 예정

▶ 2000년 12월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 부진을 이유로 차관지원을 보류하였으나, 메가와티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금지원 재개

#### ▶ 주요 지원 조건<sup>2)</sup>

▷ 소비자물가상승률: 12%(2001) → 9~10%(2002)

▷ 재정수지/GDP: △3.7%(2001) → △2.5%(2002)

▷ 연료보조금 지출 감축, 자산 매각 및 민영화 적극 추진

1) IMF가 2003년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50억 달러의 확대신용차관(EFF)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2001년 제4차 차관임.

2) 구체적으로는 조세관리 강화, Bank Niaga의 지분 매각 및 6조 루피아의 민영화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조절 및 고금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01년 중 자산 매각은 은행재건청(IBRA) 등을 통해 당초 계획(27조 루피아)을 달성하였으나 민영화 수익은 계획(5조 루피아)보다는 미흡한 3조 5천억 루피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 연도별 대 인도네시아 IMF 차관 지원내역

단위: 천 SDRs

1997	1998	1999	2000	2001.1 ~ 11
2,201,472	4,254,348	1,011,000	851,150	309,650

주: 2001년 9월 말 현재 SDRs 대비 미달러화 환율: 1.28901

자료: IMF, *Indonesia: Transactions with The Fund*, Dec. 2001.

## □ World Bank, ADB 및 KfW의 Soft Loan 지원 · 무상공여 승인

- 2001년 12월 12일, World Bank · ADB<sup>3)</sup> · KfW가 공동으로 2억 2,860만 달러의 Soft Loan 지원 승인<sup>4)</sup>

### ▶ 주요 지원내역

#### ▷ 기관별 지원규모

단위: 백만 달러

World Bank	ADB	KfW	지원 총액
200	10.6	18	228.6

#### ▷ 지원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기회 제공, 빈곤감축 기여

-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 누사 텡가라, 말루쿠, 이리안 자야 등 15개 동부지역의 도로건설 등 인프라 개발사업
- 보건 ·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 편의시설 개선, 기술 지원
-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 가속 추진

3) 12월 10일, ADB는 별도로 인도네시아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위하여 타이드론 성격의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음.

4) 메가와티 당선 이후, 세계은행은 8월 30일에 프로젝트 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4.5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는 9월 21일에 미국 수출입은행이 4억 달러의 무역신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CGI)도 11월 7일에 2002년 중 3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II. 국제사회의 지원배경과 시사점

### □ 단기간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IMF · World Bank를 중심으로 공적자금 지원이 증대되면서 단기간내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 경제위기 진단지표의 호전 예상

단위: %

	1996	1997	2000	2001e	2002f
재정수지 / GDP	1.2	△0.7	△3.3	△4.1	△3.3
경상수지 / GDP	△3.4	△2.3	5.0	2.8	3.0
총외채잔액 / 총수출	219.3	206.9	202.1	189.3	163.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76.6	198.1	74.8	88.0	82.7

자료: EIU, Country Risk Service, Sep. 2001.

### ▶ 지원 배경

- ▷ 인도네시아(최대 회교국)의 디폴트 선언을 국제기구 및 채권단이 원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여타 국가로 위기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함

- ▷ 메가와티 대통령의 정국 수습노력에 힘입어 정치불안이 진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2002년 초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 완화 기대

- 2001년 12월 12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장은 2002~3년 기일 도래  
공적외채의 리스케줄링을 조만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02년 초 파리클럽을 통한 외채 리스케줄링 가능성이 높아짐<sup>5)</sup>

▶ 외채 원금 이외에 이자에 대한 리스케줄링도 추진 예상<sup>6)</sup>

▶ 리스케줄링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억제 및 외채상환 부담 완화 기대

문의 : 개도국신용평가실 과장 조양현 ☎ 3779-6654, yhjo@koreaexim.go.kr

5) 공적외채 리스케줄링 대상 금액은 최대 60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 2월 초 적당한 시기에 파리클럽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6) 대체적으로 이자지급 연기는 고채무 빈국(HIPC)에 대한 채무경감 조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단이 용인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채 신용등급 하락 및 루피 아貨 환율불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우려됨.